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해법은 현장에서'

■보건복지·고용노동부·충북도 공동 '산업현장 토크'

청호나이스 등 진천 4개 회사 근로자와 공무원 참여
일·가정 양립의 효과적인 조기정착 모색방안 논의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 사회 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기 위한 찾아가는 산업현장 토크가 5월 12일 청호나이스 진천공장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충북도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저출산 국책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 제도의 효과적인 조기정착을 모색하고 도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현장을 방문 토크는 진천군 지역의 4개 회사(청호나이스(주), CJ 제일제당(주), 유영제약(주), 쿠우영 메디칼)의 근로자와 임직원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충북여성새일본문 진천센터, 진천군일자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결혼, 출산, 육아와 일·가정 양립의 예상사항을 토대로하고 정책수립자는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있어서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평균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호나이스(주) 사원 김진영(31)씨는 저출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육아와 일·가정 양립의 예상사항을 토대로하고 정책수립자는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으로 토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토크 행사에는 청호나이스 공장부터 후 제3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등 정부정책 소개, 고용주·현장근로자 입장의 예상사항 견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됐으며 차지단체, 중앙정부, 기업 대표 및 근로자, 유관기관 실무자 민간인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전하고, 견의사항을 피력했다는 평이다.

토크에 참여한 CJ 제일제당 김민수(53) 광장장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평균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호나이스(주) 사원 김진영(31)씨는 저출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육아와 일·가정 양립의 예상사항을 토대로하고 정책수립자는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으로 토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토크 행사에는 청호나이스 공장부터 후 제3차 저출산 고령



찾아가는 '산업현장 토크'가 5월 12일 청호나이스 진천공장에서 열렸다.

밖에도 보육료 및 학자금 지원, 다녀온 학자금 지원, 공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내용이 거론됐다.

진천군일자리지원센터 이원진(34) 상당사는 출산복지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진하고는 있지만, 과감한 투자를 통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출산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큰 지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토크를 주제한 이시종 지사는 이날 편성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없애고,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 복지 는 물론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대한 폭넓은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현실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편한실터 디자인 공모

건축 부문의 주제는 '소호', 제품 부문의 주제 '편한 생활, 편한 미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5년도 편한 일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최우수 기관에는 300만원의 포상금과 인증마크를 수여하여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부천기관·중부회원 기관에 대하여 우수기관 멘토링 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부 평가지원부(전화 02-6910-5111~9, 팩스 02-3485-984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 약수, 보통, 미흡의 4개 평가등급이 부여되며, 12월 장애인 활동지원 전용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와 각 시·군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및 공모전 카페를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대상 각 1집(400만원), 최우수상 각 1집(200만원), 우수상 각 2집(100만원), 특선 각 2집(50만원), 입선 각 15집(상장)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특선 이상의 수상자에게는 지도교수(교사) 상이 동시에 시상된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lead.or.kr) 또는 공모전 카페(<http://cafe.naver.com/leadcon>)에 게시된 공모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제한이 없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2인 이내)로 응모 가능하다.

공모전의 접수는 6월 8일까지이며 오는 8월 10일 공모전 홈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지원자금 대여 등)를 제공이 가능하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가능

(5월 6일부터)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개정따라
관할 보훈관서에 서류제출해야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상·보상대상자·화인원(이하 '화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훈관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 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9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현장평가

〈전국 228개〉

운영실태·인력 등 51개 지표
평가결과는 12월 총평에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희표)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평은)은 국설 지역 자활센터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5월 12일부터 9월까지 전국 228개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관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과 시설환경, 서비스 이용 제공 과정 및 절차, 서비스 제공 결과, 기관 운영개선 등 51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3월 10일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

가하고,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

충북적십자 '제1회 충북RCY 봉사페스티벌'

세계적십자스승의날 기념
네팔학생들에 우정의 선물

대한적십자사 충북부도지사(회장
성영용, 이하 충북적십자사)는 5월 9
일(토)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제1회 충북RCY 봉사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병우 충북도교
육감, 성영용 충북적십자사 회장, 안
치호 충북RCY위원장, 손한우 봉사
회충북지사협의회장 등 내빈을 비
롯해 RCY지도교사 및 단원 등 800
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인사에 나선 김병우 도교
육감은 1만 3천여 충북RCY단원들의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축제의 장을 마을껏 즐기고
더 활동 창·봉사활동 기회마다 고
객려의 인사를 전했다.

성영용 충북적십자사 회장은 청
소년들이 봉사페스티벌을 통해 봉
사와 나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
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바른 인성을
갖게끔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했
다 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5월 8일 세계적십자
의 날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함께
기념해 그 의미가 달랐다.

세계적십자사의 날은 적십자의 청
시자인 앙리 뒤泞(1828년 5월 8일
생, 스위스, 제1회 노벨평화상 수상)
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날
189개국 적십자사에서 기념행사를
기행하고 있으며, 스승의 날은 1958
년 5월 8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적십자사의 날을 맞아 병종에 있
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면서
시작됐고 1965년에 세종대왕 탄신
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전에 진행된 1부 행사는 RCY합
동인단선서식, 스승의 날 기념식, 축
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영용 적십자사 회장은 신규로
RCY를 조직한 동성중학교와 대소
금광고등학교에 단기기를 수여하고
신인단원들에게 배지를 달아주었
다.



제1회 RCY봉사페스티벌에 참가한 RCY단원들이 최근 자진 피해를 입은 네팔 학생들에게 전해줄 우정의 선물 상자를 만들고 있다.

한편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는
RCY지도교가 공이 많은 교사 및 단원
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 동안의 노
고를 치하했는데, 증평공업고등학교
교 전용숙 교사와 사천초등학교 이
영숙 교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 하였다.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는
는 대표단원 2명이 선생님께 올리는
글을 드록까지 장내 분위기는 솔선
하기까지 했으며 눈물을 보이는 선
생님도 보였다.

오후 2부 행사는 RCY와 함께 만
드는 가슴 뛰는 이야기를 모토로
부스별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인적, 물적, 생명나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체험부스에
서 휴머니티 OX퀴즈, 이산가족찾기
기, 우정의 선물상자 꽁꽁작성, 주먹
밥 만들기, 장애체험, 한뼘을 통한
생명나눔체험, 응급처치법 및 심폐
소생술 체험, 스승의 날 카네이션 만
들기, 적십자 및 RCY활동 홍보, 버
튼 꽂은 만들기, 요술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또한 저개발 국가의 청소년들을
위한 우정의 선물상자(군구부 일체)
를 만들며 힘들었던 지난 시절 도움
을 준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의 우정
을 높이세기는 시간도 가졌다.

김영민 RCY본부장은 오늘 제작
된 우정의 선물 상자는 최근 대자진
으로 고통 받는 네팔 어린이 등 해외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될 예정이
라며 많은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
로 참여해 줘 너무 기쁘다며 소감
을 전했다.

또한, 안전이 최근의 우리 사회의
화두여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응
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체험부스
에 관심을 보였는데, 학생들은 강사
들의 지도에 따라 시종일관 진지하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충북도, 방동위와 업무협약
올해 TV 950대 전달 계획

충북도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장애인전용 TV와 리모컨을 무상으
로 보급하기 위하여 봉송통신위원회
와 5월 11일(월) 2015년도 시·청
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험력하
여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흥보자료
의 발송과 보급 사업 홍보, 신청서
접수 및 수요자 파악 등을 추진하고
방통위는 예산확보, 흥보자료 제작
및 TV 제작 보급 등을 분담하게 된
다.

올해에 950대의 TV를 도내 저소
득 시청각 장애인에게 보급할 예정
이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자비 위치 변경기능이 월선 간
편해졌으며 현재 시청하고 있는 방
송프로그램, 체널 편성표, 회면해설
방송 제공여부 등을 음성으로 안내
해 주는 등 편의 기능이 강화됐다.

도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
위계층)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
로 이번 달부터 각 읍·면·봉을 통
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송통신위
원회는 신청자를 검증·저소득층 시
·청각 장애인 여부, 기 보급 여부
등을 7월부터 각 가정에 TV를 설치
할 예정이다.

청주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청주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편리한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한
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노인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
동복지관 등 10명 이상 컴퓨터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시민정보
화교육 강사를 파견해 교육하며
교재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
행된다.

강좌는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키보드 활용, 이미지
편집, 동영상제작, 한글, 엑셀, 파
워포인트,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다양한 과목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
위계층)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
로 이번 달부터 각 읍·면·봉을 통
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송통신위
원회는 신청자를 검증·저소득층 시
·청각 장애인 여부, 기 보급 여부
등을 7월부터 각 가정에 TV를 설치
할 예정이다.

4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제35회 충북도 장애인의날 행사 성료

이시종 지사 유공자 표창

충청북도는 4월 20일 제35회 장
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무심천체육
공원 르러스케이트장에서 2,900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

1981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같은 해 우리나라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
하여 기념식과 함께 각종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체
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체험행사로 한강나루터공연단의
한국무용과 빙그레우스청주즈를
단원들의 인도댄스로 기념식에

앞서 흥을 들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장이 장애인인권장을 날
독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장애인 권리
증명과 복지증진 공유자 9명과
건복지부장관 3인, 충청북도자사표창
6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어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장의
기념사, 주요 내빈들의 축사도 진행
됐다.

이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
하고 건강한 복지충북을 만들
어 충북도에서도 회의의 뱃길을
김동의 브루넬 대용량 강당
이 많이 나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4월 20일 무심천체육공원 르러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35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시종 도지사가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기념식에 이어 2부에서는 한마음
체험행사 등 다양한 놀거리, 참여행
사도 제공했다.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어울려
행하는 뜻 깊은 행사로 마무리됐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숲 조성

청주시 6억6천만원 투입

할 계획이다.

청주시가 소외계층을 위한 나
눔 숲 조성 사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 산하 공공
기관인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응모해 5억9천2백만
원을 지원 받아서 편안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게 된다.

또 상당구 월오동에 있는 청주
노인양호원(300㎡)과 흥덕구 옥
산면 농립동에 있는 장애인복지
공간 나눔 숲을 조성하게 된다.

나눔 숲 조성 사업은 저소득
층 소외계층 등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숲 조성, 옥상
녹화 등을 통한 녹색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설계용역에 들어
어가 해당 지역주민과 복지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13일
(수) 공사를 착수해 6월 말 완공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청주시립

청주시립 허브센터 개소식이 4

월 24일 상당구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열

린 가운데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청주시 일자리중심 허브센터 개소

청주 일자리중심 허브센터가
지난 24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지역별 복지관련 선포
사업으로 선정된 청주시 보은
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등 5
개 시 군 구민 구직자에게 상당
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를 제공한다.

청주시는 5개 시·군의 상호 연
계를 통해 생활관 일자리 불균형과
구인 구직 정보 미스매치가 해소
되도록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고 구
인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와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서비스

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기업맞춤형 교육 등을 구
직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구직자
의 취업 알선과 기업의 인력수급
현황을 조사 분석해 기업맞춤형
교육을 하게 된다. 또 구인 구직
과 대체로 원스톱으로 운영 및 관리
와 기업체와 원스톱으로 협력
하여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판
권과 기업체를 통한 일자리 판
권을 확보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를 제공한다.

한편, 청주시 일자리중심 허브센
터 2층에 온·오프라인 일자리 중
심 허브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심의보 편집위원장 유재종 편집고문 김춘길

(361-8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도이다.

입차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
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한 주거비가

1인 13만원에서 6인 23만원까지 상
한 지급되며, 자가 구구는 노후회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 개 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청주시는 5월 4일(월) 청원구 내
면도 13~20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 이승훈 청주시장, 김병국 시의회
의장, 수탁기관인 손석민 서원대 총
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 시민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종합지
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관 축하공연과 공
개포수 수여, 테이프 절단, 개관 기념
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을 연 청주시 육아종합지

원센터는 26억 원을 투입해
72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953㎡,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됐
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도서관
과 아카데미 놀이 체험실 수유실
장난감 간식실 입식 일자리 수유실
등이 있다.

청주시는 5월 4일(월) 청원구 내
면도 13~20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 이승훈 청주시장, 김병국 시의회
의장, 수탁기관인 손석민 서원대 총
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 시민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종합지
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관 축하공연과 공
개포수 수여, 테이프 절단, 개관 기념
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을 연 청주시 육아종합지

원센터는 26억 원을 투입해
72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953㎡,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됐
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도서관
과 아카데미 놀이 체험실 수유실
장난감 간식실 입식 일자리 수유실
등이 있다.

청주시는 5월 4일(월) 청원구 내
면도 13~20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 이승훈 청주시장, 김병국 시의회
의장, 수탁기관인 손석민 서원대 총
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 시민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종합지
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관 축하공연과 공
개포수 수여, 테이프 절단, 개관 기념
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을 연 청주시 육아종합지

원센터는 26억 원을 투입해
72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953㎡,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됐
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도서관
과 아카데미 놀이 체험실 수유실
장난감 간식실 입식 일자리 수유실
등이 있다.

청주시는 5월 4일(월) 청원구 내
면도 13~20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 이승훈 청주시장, 김병국 시의회
의장, 수탁기관인 손석민 서원대 총
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 시민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종합지
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관 축하공연과 공
개포수 수여, 테이프 절단, 개관 기념
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을 연 청주시 육아종합지

원센터는 26억 원을 투입해
72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953㎡,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됐
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도서관
과 아카데미 놀이 체험실 수유실
장난감 간식실 입식 일자리 수유실
등이 있다.

청주시는 5월 4일(월) 청원구 내
면도 13~20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 이승훈 청주시장, 김병국 시의회
의장, 수탁기관인 손석민 서원대 총
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 시민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종합지
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관 축하공연과 공
개포수 수여, 테이프 절단, 개관 기념
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을 연 청주시 육아종합지

원센터는 26억 원을 투입해
72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953㎡,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됐
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도서관
과 아카데미 놀이 체험실 수유실
장난감 간식실 입식 일자리 수유실
등이 있다.

청주시는 5월 4일(월) 청원구 내
면도 13~20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 이승훈 청주시장, 김병국 시의회
의장, 수탁기관인 손석민 서원대 총
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 시민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종합지
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관 축하공연과 공
개포수 수여, 테이프 절단, 개관 기념
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을 연 청주시 육아종합지

원센터는 26억 원을 투입해
72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953㎡,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됐
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도서관
과 아카데미 놀이 체험실 수유실
장난감 간식실 입식 일자리 수유실
등이 있다.

청주시는 5월 4일(월) 청원구 내
면도 13~20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 이승훈 청주시장, 김병국 시의회
의장, 수탁기관인 손석민 서원대 총
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 시민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종합지
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관 축하공연과 공
개포수 수여, 테이프 절단, 개관 기념
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을 연 청주시 육아종합지

원센터는 26억 원을 투입해
72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953㎡,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됐
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도서관
과 아카데미 놀이 체험실 수유실
장난감 간식실 입식 일자리 수유실
등이 있다.

청주시는 5월 4일(월) 청원구 내
면도 13~20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 이승훈

충북 사회복지사 워크숍 ‘성황’

복지현장 의견의 장 으로

충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안종태)는 4월 23일 복지현장에 있는 대명리 조드에서 제2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충북사회복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1박 2일간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임택수 충북도 복지정책과장, 표길수, 김영식 충북도의회 의장 표창과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표창, 그리고 어여사회복지사상 37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수상을 했다.

충북사회복지사 협회 안종태 회장은 개회사에서 충북의 복지발전과 사회복지사 권리 및 척우항상을 위해 불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시고 특별히 사회복지사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입모스터스를 해소하고 쌓인 피로를 벗어날 수 있는 훨링과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임택수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읽은 복지현장의 정보교류와 의견 교

환의 장이 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북 도지사 및 충북 도의회 의장 표창과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표창, 그리고 어여사회복지사상 37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수상을 했다.

충북사회복지사 협회 안종태 회장은 개회사에서 충북의 복지발전과 사회복지사 권리 및 척우항상을 위해 불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시고 특별히 사회복지사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입모스터스를 해소하고 쌓인 피로를 벗어날 수 있는 훨링과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임택수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읽은 복지현장의 정보교류와 의견 교



충북사회복지사 워크숍에서 사회복지사 선서를 하고 있다.

온 인사말에서 도민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충북 도민들이 행복에 질 수 있도록 행복을 전달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고 했다.

1부 개회식에 이은 2부에서는 개그맨 김학도씨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한국생산성본부 박은주 교수의 행복한 인생 일과 삶의 균형 이란 주제의 특강이 있으며 3부 화합의 장에서는 함께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지기도 했다.

개별상담, 집단상담, 노인권의상담, 교육 연 구 등 6개 사업영역으로 추진되며, 특히 행복마실 광역콜상담(전화 715-6789)은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년째 상담사 20명이 배치되어 전화상담(아웃비昂드콜상담)을 통하여 안전확인, 졸, 정기적 전화문안, 밀방상담, 품, 인지기능 향상, 위기지원 상담, 복지정보 제공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별상담은 전문 심리상담사가 우울 및 자살예방, 분노조절, 가족 및 대인관계, 심신장애 및 간병부담, 부부 및 성 문제, 죽음준비 및 애도

등의 전문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상담 서비스는 내담자의 상황에 맞추어 전화상담, 내방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노인권의상담(경제생활, 소비자 피해, 취업지원, 노인학대, 치매예방, 충북, 노인용품)은 17개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기관 연계상담의 형태로 추진된다.

이용대상은 충청북도 내 60세 이상 노인 및 기록으로 전화, 방문, 인터넷, 추천 및 퇴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자체한 내용은 충북노인광역상담센터 행복마실 043-715-6789로 문의하면 된다.

체로운 공연도 진행된다.

또 박람회장에서는 군내 기관 단체 등에서 마련한 복지서비스 홍보부스와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나눔마당, 캠프그라피 손글씨 체험, 다육식물 힐링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아울러 음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깊고 묵은 풍물, 오카리나, 스포츠댄스 등을 맘껏 뛰어들고자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일하고 내실 있게 행사준비에 복지체험의 한마당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도 가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과 이해를 높이고자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일하고 내실 있게 행사준비에 복지체험의 한마당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동군, ‘8회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8회 영동희망복지박람회가 5월 26일 실핏니는 복지로 함께 하는 동행과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영동을 영동현 눈에 일원에서 열린다.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군내 70여개 기관 단체가 참가해 61개의 체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총 206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복지지역 사회복지사들이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있던 숙제를 함께 풀어낸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의 주요 안건은 총 7개 안건으로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세칙, 회장단 선출 등이 모두 가결되었으며, 초대회장으로 박기석회장(밀양한마음쉼터 원장)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으로는 서진신(백야동 복지관장), 안홍규(대원대학교 사회

복지과 총동문회장)씨가 선출되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박기석 초대회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 협회가 될 것이라는 인사말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권

의향성과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다. 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안종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직위에 출석해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 협회 창립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됐다.

제7회 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는 2월 5일부터 청립총회 5명으로 시작, 준비위원회의

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총 12명으로 증가되었고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총 2회의 창립준비위원회의(위원장 유용식)를 거쳐서 협회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결과 창립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

충북도청 네팔 지진 구호성금 전달

직원 3111명 성금모아 이시종 도시자 네팔대사관 방문 기탁

충북도청 직원들이 네팔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네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금한 22,888,000원의 구호성금을 이시종 도지사가 5월 13일 주한 네팔대사관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충북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3,111명의 직원이 참여해 의미를 담았다.

충북도는 삶의 기반을 잃고 고통과 슬픔에 빠진 네팔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복구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긴급구호 성금을 모금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북도청 직원 일동
충북도 이시종 지사가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 대사에게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농업기술원 “영농철 일손돕고 훈훈한 정 나눠요”

진천가나안복지마을서 경작봉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중) 직원 40여명은 5월 13일(수) 봄철 일손이 부족한 진천 가나안복지마을(원장 홍성세)을 찾아 재단에서 경작하는 4,958㎡ 규모의 배 밭에서 업무속기하고, 어르신들을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가나안복지마을은 노인성 질환 치 때 종 풍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운 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1998년 설립된 노인요양시설이다.

재단은 입주한 어르신을 위해 직

접 배밭을 경작하고 있으며, 일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예탁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도농업기술원 직원은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면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계기를 마련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현장에서 영농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제배 기술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족한 일손을 돋기 위해 계절별 작별로 바쁜 영농철에 지속적으로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직원 40여명은 5월 13일 봄철 일손이 부족한 진천 가나안복지마을 찾아 배 밭에서 열매솎기하고, 어르신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부활원, 행복나눔 사색체험·바비큐가든파티

이웃사랑 한마음회 후원으로 진행

부활원(원장 김희경)은 가정의 달 오월을 맞이하여 부활기독교 협약체 이웃사랑 한마음회(회장 오명숙)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부활기독교 이웃사랑 한마음회가 함께하는 행복나눔 사색체험&바비큐가든파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부활원의 협약체인 이웃사랑 한마음회 이오영씨가 특별 후원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진행됐다.

단체급식으로 인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바비큐 가든파티는 5월 7일(목) 부활원 운동장에서 부활원 생활인 156명과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60여명, 직원 30명 등 총 250여명이 함께하였으며, 1부에서는 야외



5월 7일 부활원에서 진행된 바비큐가든파티에서 고은소리민요합창단의 공연을 하고 있다.

음악회로 생활인의 하모니카 연주(고향의 별), 충북문화복지재단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되는 소평농협회 생활인 156명과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60여명, 직원 30명 등 총 250여명이 함께하였으며, 1부에서는 야외

나의 아버이 은혜, 고은소리민요합창팀, 섹스폰, 가요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행복나눔 사색체험으로 보고, 즐기고, 맛보고, 느끼는 시간을 통하여 가정의 포근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

충북본부 청렴 해피-콜 도입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민홍기)는 복직외, 건설공사 등 부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청렴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청렴 해피-콜 제도는 공사를 방문, 업무를 처리한 고객에게 부서장이 직접 전화 또는 SMS를 통해 담당직원의 청렴성, 투명성, 공정성 등 5개 문항의 설문을 실시하는 제도다.

충북본부는 Happy-Call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부부 균원을 없애고, 고객의 불만도민을 분석해 문제점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본부는 능촌홀몸노인 식사제공, 치매예방캠페인, 공동체 복원을 위한 능촌기부기증운동 등 사회공헌활동과 충북지역의 강점과 특수성을 감안한 농촌지역개발 신수종 사업 발굴과 정책사업화에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이여 책속에서 길을 찾아라!

(주)스크린 에이치디 코리아

청주 대우꿈동산에 도서 기증



(주) 스크린 에이치디 코리아의 김규리 부정 대우꿈동산 대표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도서 전달식에는 (주) 스크린 에이치디 코리아의 김규리 부정 등 6명이 직접 서울에서 도서를 차에 실고 서예 대우꿈동산 유동모 대표에게 전달하였다.

도서를 기증한 (주) 스크린 에이치디 코리아는 1977년 설립되었으며, 사명을 다이나존 스크린 코리아(주)에서 2015년 4월 현재의 (주) 스크린 에이치디 코리아로 변경 하였으며, 인쇄 및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수입 판매 설치 하는 회사로서 2007년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시작으로 해외동포보내기운동협의회와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 청소년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도서를 기증하는 등 행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이다. 도서와 전달식 참여한 김규리 부정은 우리사회 미래인 청소년들이 책을 통하여 사회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를 기증하고 있다며, 오늘 기증한 도서로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주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대우꿈동산은 이날 기증 받은 도서와 기증의 도서를 활용해 북카페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천성모병원 150만원 상당 물품 전달

장애인복지관에 MP3 기증

진천성모병원은 아버이날을 기념하여 진천군지역 장애어르신과 재가장애인 어르신에게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소중하게 쓸 것을 약속했다.

한명수 진천군장애인복지관장은 진천성모병원 덕분에 어버이날 행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지역장애인에게 이웃의 따뜻함을



진천성모병원은 150만원 상당의 헌금과 MP3를 진천군장애인복지관에 기증했다.

전할 수 있는 듯 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희망담은 기저귀 저소득층에 전달

유한킴벌리 충주공장 물품전달

10년이상 기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 날 기부된 기저귀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영유아가 정에 지원된다.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은 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매달 1만원에서 3만원씩 저소득층 영유아가 정에 지원된다.

유한킴벌리 사회공헌프로그램 일원인 희망뱅크 프로그램은 제품 종종 사이즈 교환 제품을 제조장에 마련된 재원으로 지난 2014년에는 충주시 저소득가정에 6,000장의 연탄을 전달했으며 그 외에도 충주 지역 중고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은 5월 11일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에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700만원 상당의 희망뱅크 기저귀를 전달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어려운 이웃돕기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OB맥주 사랑의 쌀 400포 청주시에 기탁

충북지역에 생산 공장을 운영 토기입 OB맥주가 복지사각지대 소외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OB맥주 충청권역본부(본부장 이승훈 청주시에 이동훈 청주시장, OB맥주(주) 충청권역본부(본부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동훈 청주시장)는 4월 30일(목)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청주시에 1,000만원 상당의 쌀 400포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OB맥주(주) 충청권역본부(본부장 이동훈 청주시장, 이동훈 청주시장)는 4월 30일(목)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청주시에 1,000만원 상당의 쌀 400포를 기탁했다.

충북지방자유도매협회 최봉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탁된 1,000만원 상당의 쌀은 저소득가정 4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헌만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작은 정성이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재능나눔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모집대상

| 1004지역사회봉사단 :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 및 개인

| 베이비부모봉사단 : 55~63년생의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개인

봉사활동 : 연중 (월 2회 이상 권장)

분야별 봉사활동

구 분	내 용
상담 · 정보봉사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 · 청소년 상담 및 멘토링, 위업, 창업 등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기술 · 기능봉사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 · 가스점검, 질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교육 · 학습봉사	나눔 · 경제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지도 등 학습지도
운영 · 지원봉사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 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 보조봉사 등
노력 · 행정봉사	사회복지기관 시설 · 단체 노회봉사, 청소년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 · 의료봉사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문화 · 예술봉사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및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통 · 환경봉사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등

봉사혜택

| 재료비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사회복지기관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으로 로그인 후, My VMS에서 언제, 어디서나 봉사활동 실적 확인 및 확인서 출력 가능

| 봉사단 위촉장 수여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의 지역사회봉사단 위촉장 수여

| 우수봉사단 표창

우수 봉사단에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추천

| 문화 · 예술공연 지원

우수 봉사단에 클래식,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 무료 관람 지원

|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지원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 박희진 코디네이터 ☎ 043) 234-0840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시론

노인 호칭을 변경하자



김준길

충북사회복지신문 편집고문

나이 들어 첫 손자가 할아버지(할아버지)!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김회는 나도 자손을 두고 있다는 현실감과 딸분이 열리기 시작한 손자의 귀여움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나도 드디어 고령층 반열에 들게 됐구나 하는 인식을 새삼스레 갖게 됐다.

이 같은 소회는 다른 고령층 인사들도 비슷하게 가졌다고 주위는 동감을 표시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전통사회는 공자의 영향을 받아 나이에 따른 경칭을 달리했다.

10세 중년(2年), 15세 지하(志學), 16세 과년(瓜年), 20세 악관(弱冠), 30세 이립(而立), 40세 불혹(不惑), 50세 지천명(知天命), 60세 이순(耳順), 61세 환갑(還甲), 62세 진갑(進甲), 70세 고희(古稀), 77세 회수(耆壽), 80세 산수(傖壽), 88세 미수(米壽), 91세 양백(望百), 99세 백수(白壽), 100세 상수(上壽), 108세 다수(茶壽)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고령층, 즉 나이든 사람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통틀어 노인(老人)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중국은 60대를 장년(長年), 70대는 존년(尊年)이라고 하고, 일본은 노인과 함께 노년(老年)과 실버(Silver)한 용어를 함께 사용해 왔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늙은 사람(Older Person), 나

이든 사람(Aged), 연장자(Elderly), 선배시민(Senior Citizen), 황금연령(Golden age) 등으로 호칭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이 80세

에 접근하고, 100세 시대를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

서 이제는 노인이란 호칭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 각인된 전형적인 노인(老)

인의 개념은 존경의 의미보다 부정적인 모습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허리와 등은 굽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얼굴과

손에는 주름이 넘쳐나고, 용봉성(용봉성)이 용색한 채 동작은 굽은 죽을 일의 사람들이란 의미를 내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부 노인들의 비범직하지 않은 행태

로 인해 노인의 존재를 폄하하는 노구(老鷹), 노둔(老鈍), 노망(老妄), 노쇠(老耄), 노희(老猾), 노육(老慾), 노죽(老齶)등의 말을 들어야 했다.

지금도 부정적인 노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 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의 개념이 변 경돼야 한다.

1950년대에는 60대를 당연히 노인으로 취급했지만 현재의 60대는 장년이자 과거의 노인이 아니다.

일부 언론은 60~75세까지를 신중연(新中年)이라고 부르고, 학자들은 신노인(新老人)의 출현과 그 문화의 창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하고 연금 등의 경제력도 있으며 사회참여도 활발한 채 자식들로부터 독립적인 생활 자세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고령층에게 과거의 부정적인 어감을 내포하는 고령층에게는 과거의 부정적인 어감을 내포하는 노인 이란 호칭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한국 끝든에이지 포럼은 지난 2010년

6월 30일 노인 호칭 변경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 역시 노인이란 호칭을 버리고 어르신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도 요즘에는 노인이란 말 대신 고령자란 호칭을 주로 쓰고 있고, 미국은 과거 사용하던 aged 보다 senior나 elderly란 호칭을 더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인 대신 어떤 호칭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서울시가 사용 중인 어르신 이란 호칭을 선호한다.

어르신 이란 말은 얼이 원숙하여 얼이 신과 같은 사람 또는 지혜를 갖추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어르신은 고령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의 일상적인 사용은 적합할지 모른 가치증립적인 법률 용어로까지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지를 모아 노인 대체 용어를 선택할 때까지는 고령자나 어르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집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방향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전국단위 아동기구조사인 2013년도 아동종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현황을 살펴보고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아동빈곤율은 사용한 빈곤 기준선에 따라 9.45%에서 10.62%로 나타났다.

아동기구의 약 4%가 기초보장 수급가구이거나 차상위지원을 받는 가구일을 감안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아동은 약 3.8%에서 5.6% 정도이며, 이는 약 366천명에서 538천명으로 추산된다.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방안과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 어려움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아동빈곤은 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생활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로 정의된다. 가구의 생활수준은 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소득의 결핍은 아동 발달에 필요 한, 주거환경, 영양, 건강, 양육, 교육 등에서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한다. 아동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투자와 빈곤경험은 성장기의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성인기의 빈곤과도 연결된다. 지속적인 저성장과 소득의 양극화는 아동기의 빈곤이 성인기의 빈곤으로 이어져 빈곤의 만성화 경향을 가속화 가능성이 높다 (정은희외, 2013).

우리나라에서 전국 규모의 아동

가구 데이터를 활용한 아동빈곤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복지페널의 경우, 아동가구의 샘플규모가 작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동가구의 규모와 저소득층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의 탈락은 빈곤 아동기구의 대표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한국복지페널이외에 전국의 아동기구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조사를 한 데이터는 2008년도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분석하고 아동빈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빈곤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아동빈곤 현황

①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가장 최근에 조사한 전국 단위의 아동기구 조사인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빈곤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0~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4,007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아동기구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설문에 직접 응답하여 조사하였다.

최종분석은 4,007 아동기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가구특성을 활용하여 아동빈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빈곤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을 의미하며, 빈곤 즉정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개념을 활용하는 절대빈곤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저자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상대빈곤은 중위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균등화 처리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을 활용한다.

② 분석대상 샘플의 특성

아동기구의 규모와 거주지역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 수는 3.7명이며 가구당 평균 아동수는 1.6명으로, 두 명 미만의 아동이 성인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가 평균적 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유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양부모가 있는 경우는 평균 89.4%이며 한부모 및 조손 가구의 경우는 평균 10.6%로, 대부분의 아동기구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부모가 있는 경우는 평균 49.4% 정도가 비정상인 경우는 10.6%로, 대부분의 아동기구는 아동과 함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구의 지역적 분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평균 43.6%이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평균 50.3%,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평균 6.1%로 나타났다.

아동기구의 약 94% 정도가 대도시

와 중소도시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기구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가구 비율은 평균 25.6%, 차상위층 아동가구는 평균 13.3%, 일반 아동가구는 평균 96.1%로 나타났다.

2012년 말 우리나라 아동빈곤을

이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절대 빈곤선) 5.9%임을 감안하면 (임원

설) 2013년 아동실태조사는 시장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경상소

득과 가처분소득 자료만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하는 소득은 가처분 소득을 활용하여 빈

곤율을 계산하고자 한다. 가처분소

득은 가구 내 실제 사용 가능한 소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장 소득을 반영하는 개념이 때문이다.

빈곤을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 기

준의 절대빈곤율은 9.45%로 나타

났으며, 증원소득의 50%미만 기준의 상대빈곤율은 10.62%로 나타

났다. 아동기구의 약 4%가 기초보

장 수급가구이거나 차상위 지원을 받는 가구임을 감안한다면, 사각지

대에 있는 빈곤아동은 전체 아동 중 16.0%, 12~17세 아동의 경우에는 16.0%, 12~17세 아동의 경우에는 40.9%로 나타났다. 주양육자

경우, 5.6% 정도가 근로활동 상태였

으며 49.4% 정도가 비정상인구이거나

나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아동기구 빈곤의 특성

본 연구에서 아동빈곤은 소득기준을 이용하여 빈곤기구를 구분하고자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시장가구인 경우 빈곤율은 79.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차상위 가구인 경우 빈

곤율은 64.11%로 두 번째 높게 나타

났으며, 일반가구인 경우의 빈곤율은

6.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빈곤율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가구에 속하는 빈곤기구는 시장지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13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샘플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다.

즉, 일부 법정 차상위 계층의 가구가 일반기구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기구의 빈곤율이 높은 측정되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아동의 연령 또한 빈곤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0~2세 사이에 있는 경우 3.22%로 나타났지만 한부모 조손 가구의 경우 12.79%, 3~5세 사이의 경우 6.61%, 3~5세 사이의 경우 6.85%, 9~11세의 경우 9.7%, 12~17세 경우 11.48%로 나타났다.

특히, 0~2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구와 3~5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1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거주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10.25%, 중소도시 거주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7.33%로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아동가구의 빈곤율과 중소도시 아동가구의 빈곤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또한 빈곤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0~2세 사이에 있는 경우 3.22%로 나타났지만 한부모 조손 가구의 경우, 양부모가구보다 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족형태별 빈곤율은 양부모가구의 경우 3.22%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구와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6.61%, 3~5세 사이의 경우 6.85%, 9~11세의 경우 9.7%, 12~17세 경우 11.48%로 나타났다.

특히, 0~2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구와 3~5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12~17세 사이의 경우 6.85%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과 같은 현금지원으로 인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아동 빈곤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소득의 유통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2013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월평균 소득만을 피워하고 소득률에 대한 세부영역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 외에도 아동의 연령과 빈곤율과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원인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관련기사 7면에

충북긴급복지지원센터

1688-0012

생활에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지원을 해드립니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원하신다면 가까운 복지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복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충북긴급복지지원센터

*지원종과 지원액은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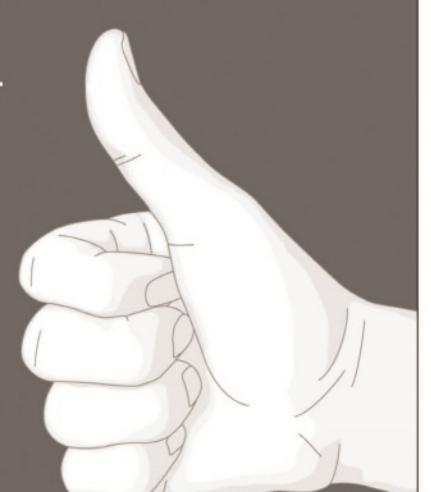
2015년에도 당신의 인권을 지켜 드립니다!

www.043whr.or.kr

043)239-8903

충북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

043)239-8903





이 달의 복지상식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

병원을 이용하다 보면, 진료비가 많이 나온 것 같다거나 비급여 비용이 많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진료비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진료비가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진료를 받은 사람(환자) 본인,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 관계에 있는 가입자 및 그 부양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진료비 영수증이 없다면 병원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재발급이 어렵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납입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표민원전화 : 1644-2000)에 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도 작성 제출이 가능하다.

진료비 확인 요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별법, 허위청구 등 여부를 심사한 후, 확인 요청을 한 사람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